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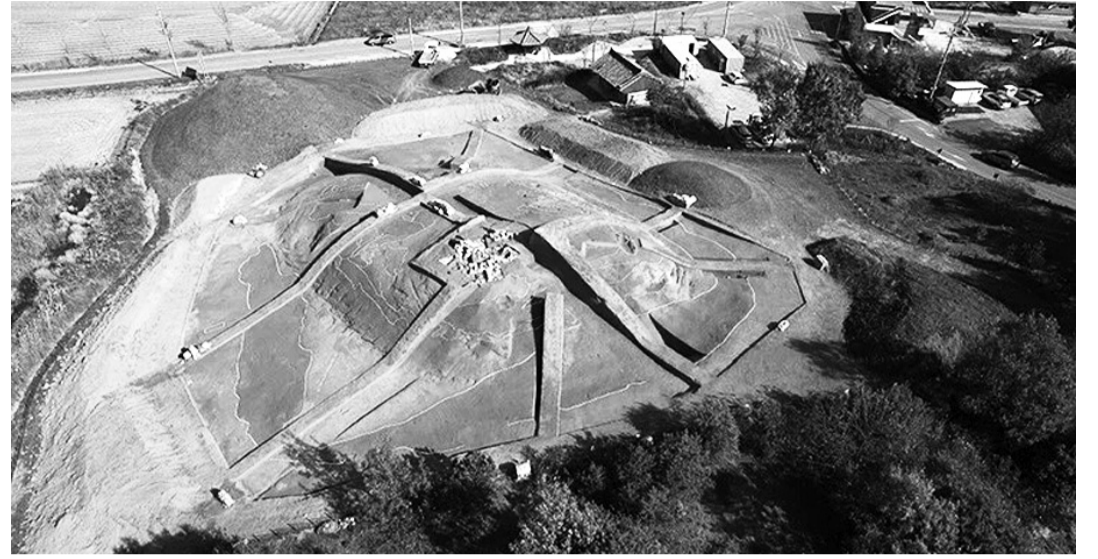
영암군, 마한 유적 '내동리 쌍무덤' 국가 사적 승격 추진

군·전남문화재연구소 오늘 학술대회...쌍무덤 등 고분군 발굴 성과 토론했다

영암군이 마한역사문화권의 대표 유적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 사적 승격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전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와 15일 한국트르트가호텔에서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암 쌍무덤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를 밝혀 국가 사적 승격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마한의 심장 영암'을 구호로 마한역사문화권 구축을 위해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연장선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마한 연구자들이 모여 영암 쌍무덤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학과 고고학의 학제적 연구를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집대성한다. 학술대회 1부는 한국고대사학회장인 정재운 공주대 교수의 특별강연 '영암 일대 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로 문을 연다. 이어 전문가 주제발표로 선문대 최영주의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조성 시기와 세력변동',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환의 '백제의 마한 병합과 영암 내동리 쌍무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오동선의 '영암 시종지역과 백제 고분군 비교 연구', 계명대 임동민의 '영암 시종지역 마한 소국의 변천'이 계속된다.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강봉룡 목포대 교수를 좌

장으로 국민대 김재홍, 강원대 김규운, 충북대 전진국이 토론자로 참여해 1부 주제발표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쌍무덤을 포함한 영암 고분군의 발굴 성과와 역사적 해석을 놓고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서 2018년부터 추진해왔던 영암 내동리 쌍무덤 관련 사업의 결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학술대회가 쌍무덤 국가 사적 승격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영암의 역사·문화 자원이 전국 관광객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현장 전경.

해남 산이면 금호지구 '농촌정비사업' 선정

국비 등 127억 확보...2027년까지 유해시설 철거 등

해남군 산이면 금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1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 현산면 시등지구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산이면 금호지구까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현산 시등지구는 총 50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장기 방치 건물 등 농촌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

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해 농촌공간 재생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산이면 금호마을에는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 귀농인임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유해시설로 인한 금호계 수질오염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안전 시설 확충으로 농촌 마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희수(왼쪽) 진도군수가 최근 진도읍 조금시장을 찾아 명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전통시장서 '추석 물가 안정' 홍보

이달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는 진도군이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물가 안정' 홍보를 펼쳤다. 이날 김희수 진도군수와 공무원들은 진도읍 조금시장을 찾아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홍보했다. 김 군수는 시장 명물인 썬빵이, 굴, 등부기(모자반), 시루떡 등을 구매했다. 진도군은 최근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시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수시 점검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추석맞이 물가 안정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소각 산불 없는 마을' 선정 완도군 노화읍 내리 등 3곳

완도군은 올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완도 지역 3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완도군 노화읍 내리, 어룡리, 방축리 등 3곳이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부산물·폐기물 무단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2만3000여 개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기간 소각 산불 건수, 산불 예방 활동 등 실적에 따라 우수 마을을 선정한다. 완도군도 올해 242개 마을이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노화읍 내리, 어룡리, 방축리 3개 마을이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도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마을에는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현판이 주어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역점 사업 추진 하반기 보고회

연내 준공 복합문화센터·보건소 신축 이전 등 점검

무안군은 지난 11일 김산 군수 주재로 주요 역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하반기 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회의 이후 사업별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무안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은 37개이다. 주민 생활 기반시설과 미래 먹거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안읍 옛 5일시장 부지에는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무안읍 복합문화센터'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안군 보건소 신축 이전과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항공기 정비 등 항공특화단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 신축, 도시재생 등을 마무리해 무안읍의 문화·보건·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항공특화단지에는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 지역 항공물류산업 발전의 토대로 만들 목표를 세웠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이외 무안군의 역점사업에는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영산강 관광경관 개선 ▲사교전 생태하천 복원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이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요 사업들의 지속적인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아내겠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목포시, 19~20일 도로 통제 확인하세요

양을산·갯바위터널·옥암지하차도...청소 위해 1개 차로 설문을 세울 계획이다. 목포시는 추석 명절과 10월-11월 열리는 전국 체전·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청소를 벌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소 작업을 하는 기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해달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